

노량진(오전)	6시
오전(1부)	7시
오전(2부)	10시
오후(3부)	2시
오후(4부)	5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1부(오전)	7시
2부(오전)	10시
3부(오후)	2시
4부(오후)	5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1년 7월 18일 (제1106 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동 우 컬럼

과유불급(過猶不及)

6월 24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나는 네가 필요하다.”

나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바로 알았다. ‘제발 몸조심하라’는 말씀이다.

요즘 여러 가지 일로 마음도, 몸도 분주했다. 세월을 이길 장사가 있을까. 나도 예외가 아닌지라 사실 좀 지쳐있었다. 이를 아시고 하나님이 내게 경고와 당부의 메시지를 주신 것이다.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서울 교회 담임인 이시대 목사가 몸이 좋지 않아 몇 주가량을 쉬게 했다. 나는 그에게 무조건 쉬어라, 그냥 아무 생각 말고 먹고 자라고 했다. 그리고 지난주일, 이시대 목사와 예배 후 점심을 같이 하면서 나는 내 꿈 이야기를 들려주며, ‘나는 네가 필요하다.’고 했다. 부디 건강 잘 챙기라는 말이었다. 이시대 목사가 잘 알아들었으리라 믿는다.

아무리 비싼 그릇이라도 깨지면 못 쓴다. 더러운 그릇은 닦아서 쓰면 되지만, 찌그러진 그릇도 퍼서 쓸 수 있지만, 깨진 그릇은 다시 못 쓴다. 아까워도 버려야 한다.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주의 종이라고 해도, 아무리 유능한 일꾼이라고 해도 육체가 깨지면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다.

건강을 잃은 자에게는 미래가 없다. 그래서 내 건강관리는 내가 해야 한다. 내 건강상태는 내가 제일 잘 아는 법. 내게 맞는 속도로 달려야지, 무리하면 결국 고장 나게 된다. ‘5분 빨리 가려가다 50년 빨리 간다.’는 말이 암시하듯 조금 빨리 가려다가 진짜 일찍 가게 된다는 것이다. 사랑하는 내 제자들이 과속으로 먼저 간 경우가 상당히 많다. 또 과속하다가 고장이 나서 쉬고 있는 경우도 있다. 마음이 아프다.

과식, 과로, 과속, 과신은 사살행위다. 누차 말하지만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자동차에서 액셀레이터가 고장 나면 빠리는 못 가지만 대형사고는 면한다. 그러나 브레이크가 파열되면 대형사고가 나는 법, 인생에도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으면 큰 사고가 난다. 제발 욕심 부리지 말자. 과유불급(過猶不及)이다!

주님이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신다. “나는 네가 필요하다.”

내가 들은 주님의 음성

목사님은 지난 수요일예배를 통해 목회 36년을 넘어 지금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음성을 소개하며 그 계시에 따라 오늘에 이르렀음을 간증하셨다.

“이 성경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약속을 지켜 순종한 사람들의 간증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나 제사장 사가라의 아내 엘리사벳은 이미 늙어서 경수가 끝나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도저히 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탄 나였지만, 그때부터 사업은 뒷전이고 산으로, 들로 기도하러 다녔고, 교회 화장실 청소며, 꽃꽂이며 도맡아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는 산타복장을 하고 청춘 남녀들에게 쿨을 나눠주며 전도하러 다니기도 했습니다. 정말 예수에 반 미쳐서 물불을 안 가리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다 예수가 야수에게 미쳤다고 집에서 내 쫓겼고, 설상가상으로 담임목사님으로부터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단에서 설교로 패고, 교회 일도 못하게 하는 겁니

봐라!’ ‘나 여호와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케 하며 네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 댄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은 것이라 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사 58:11~12). 정말 그 말씀대로 나는 목회하면서 마가다락방, 송의동 인천교회, 장



주일에배 광경(KBS스포츠월드 아레나, 구 KBS88체육관)

음성이 아브라함에게, 사가라에게 임했고, 그 계시대로 사라는 이삭을 낳았고,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을 낳았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듣고 경험해놓고는 좀 지식이 있다, 권력이 있다 하는 사람들의 말에 그냥 넘어갑니다. 내가 경험한 것을 문화적인 지식 앞에 다 팔아먹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믿지 못하여 아내의 말에 넘어간 아담은 에덴을 빼앗겼던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계시를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교회에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나에게 성령과 능력이 임했고, 나를 통해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평신도 시절이었습니다. 부모 유산으로 돈이 있었기에 여러 사업에 손을 대며 승승장구하

다. 잔뜩 시험에 들어 쫓겼던 생뱃주를 들이키고는 근처 교회에 가서 통곡하며 기도하다 집에 들어가 대자로 누웠다가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천둥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이하를 보라!’ 깜짝 놀라 눈을 떠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급하게 성경을 찾아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간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벧전 1:6~8).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다니, 나에게 하시는 말씀 아닌가’ 하며 정말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금식에 들어갔습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사야 58장 11절, 12절을

성 기도원 등 무너진 교회들을 세웠고, 전국과 전 세계를 다니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영적으로 되살리는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왜 믿지 못합니까? 제발 여러분들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계시록에 첫사랑을 잃으면 촛대를 옮긴다 하시지 않습니까? 야구나 축구에서도 1군, 2군, 3군이 있습니다. 아무리 1군에서 잘 나가던 선수도 연습을 게을리 하면 2군, 3군으로 떨어지다 결국 퇴출되고 맙니다. 신앙생활도 동일합니다. 지금 목사요 장로요 해보아 다 소용없는 겁니다. 신앙생활 게을리 하다가는 버림받고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음을 명심하고,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일에 헌신하던 그 영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은택 목사

**7월 12~25일 2주간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라
수요일예배 및 주일에배는 비대면 온라인예배로 진행됩니다.**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마28:16~20)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목사님, 우루과이에서 백만 명 집회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저희는 그 집회를 위해 지금 합심기도에 들어갔습니다.”

남미의 이현숙 선교사가 흥분한 목소리로 이렇게 전화했습니다.

저는 “암~~ 당연히 해야지. 내 꿈이 이뤄지는 건데.”라고 답했습니다.

“I have a dream.”(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37년 전, 철산리에서 한 명의 성도를 놓고 목회를 시작할 때도 저에게 꿈이 있었습니다. 바로 세계교구라는 꿈이었습니다. 누가 들으면 미친놈 소리 듣기 딱 좋은 큰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이 목회 15년 만에 이루어졌음을 여러분은 보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꿈을 가졌는데, 그것이 바로 백만 명 집회였습니다. 저는 빌리 그라함 목사와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의 백만 명 집회를 영상으로 보면서 “빌리 그라함 목사의 하나님은 누구고, 본케 목사의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저도 백만 명 집회를 하게 해주십시오.” 하며 제 꿈을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우루과이에 이어 이번에는 베네수엘라에서도 백만 명 집회를 해달라는 요청이 온 것입니다. 저는 주일예배 시간에 이현숙 선교사와 전화를 하며 이 사실을 성도들에게 확인시켜주었습니다. 대나무가 땅속에서 오랫동안 뿌리를 키워 싹을 틔운 다음 5년 만에 비로소 죽순을 땅으로 내놓고 나면 1년 만에 거의 20m 가깝도록 자란다고 하더니, 꽃망울 하나가 피기 시작하면 곧 꽃망울이 여기저기서 터진대더니 물꼬가 터지니까 이곳저곳에서 백만 명 집회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계란을 먹지 말고 내일의 암탉을 길러라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을 만큼 흥분된 마음을 진정할 수가 없어, 선교팀 한은택 목사님과 지난 일들을 얘기하고, 장래 일들을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주일에 베네수엘라 집회 영상을 다시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저는 2008년 베네수엘라 카라카스 집회에 갔을 때, 수도 카라카스의 ‘승리의 광장’을 돌면서 “하나님, 이곳에서 백만 명 집회를 할 수 있게 축복해주시지요.”라고 두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다음 해인 2009년, 베네수엘라 기독교협의회 회장 루이스 목사, 리빙스턴 목사를 비롯한 여러 목사들이 “베네수엘라를 건져주십시오.”라며 예고도 없이 우리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국가의 위기를 절감한 목회자들이 지구 반 바퀴를 돌아 저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2010년, 베네수엘라 만 명

의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12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간에도 저는 꿈을 잊은 적도, 꿈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뜻하신 때가 되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950~60년대 흑인인권운동을 이끌었던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있습니다. 그의 꿈은 그가 한 연설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백인 소년과 흑인 소녀가 손에 손을 붙잡고 몽고메리 시가지를 걸어가는 것입니다. 나는 언젠가는 피 묻은 조지아 주 언덕 위에서 옛적 노예의 아들과 옛적 노예 소유주의

아들들이 형제애에 넘치는 밥상에 함께 앉아 있으리라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미국의 흑인들이 사람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했을 때입니다. 이러한 힘든 상황에서 마틴 루터 킹 목사는 꿈을 가졌습니다. 당연히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 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 다. 그는 비폭력투쟁으로 꿈을 일구다 1968년, 총에 맞아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꿈은 온갖 역경 속에서도 계속 진행되었고, 마침내 40년 후, 노예의 아들이 백악관의 주인이 됨으로써 그 꿈은 확실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꿈은 여러분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다만 당신이 꿈을 버렸을 뿐입니다. 당신이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스스로 꿈을 접었기 때문에 꿈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꿈은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뤄집니다. 하나님은 뒤로 물러나 침묵에 빠지는 자를 기뻐하지 않으시며, 그런 자와 함께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히10:39). 아브라함

이 20년, 야곱이 25년, 요셉이 13년, 그리고 이초석 목사가 15년을 기다려 꿈을 이루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저는 아프리카에서 백만 명 집회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루과이와 베네수엘라에서 먼저 제 꿈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저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을 이번에 다시 깨닫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터넷으로 세계가 하나 된 오늘날, 인터넷 예배를 통해 세계를 아우르는 꿈을 갖습니다. 각 나라 말로 동시 통역을 하여 예배를 생중계하는

꿈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백만 명 그 이상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 까? 황당한 꿈일까요? 아니요, 자고로 꿈은 황당해야 합니다. 현실적인 것은 절대 꿈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무슨 꿈을 꾸고 있습니까? 꿈이 없는 자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지금은 비록 새우잠을 자더라도, 비록 돌베개를 베고 자는 신세라도 고래 꿈을 꾸기 바랍니다. 꿈꾸는데 돈이 드는 것도, 세금을 내는 것도 아니고, 학벌이나 미모가 필요한 것도 아닌데 꿈을 크게 갖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에도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시81:10)고 하셨습니다. 2대째 선전적 소경인 바디매오가 눈을 뜨겠다는 꿈을 가진 것을 보셨지요?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던 여인도 낫겠다는 소망을 버리지 않은 것을 아시지요? 거만한 재판장을 매일 찾아가 과부가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은 것을 성경에서 보셨지요? 70이 넘은 나이에도 꿈 때문에 흥분한 이초석 목사를 보셨지요? 그런데 왜 당신은 꿈을 포기합니까? 왜 당신은 내일의 암탉을 포기하고 한 알의 달걀을 먹어

치워 버립니까?

여러분, 예전에 사하라 사막을 건넌 사람은 군인과 장사꾼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정복자와 거부의 꿈이 있었기에 죽음의 모래바람 속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꿈이 있는 자는 쉽게 지치지도, 쉽게 좌절하지도 않습니다. 꿈이 그들의 지지대이기 때문입니다.

꿈만큼 성장하고 기도만큼 이룬다

내 형편이 어렵습니까? 내 환경이 나쁠까? 내 건강이 안 좋습니까? 그러니까 더욱 큰 꿈을 꾸어야지요. 그래야 고아인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일이 생기고, 과부인 룓이 거부와 결혼하는 일이 생기고, 중풍병으로 고생하던 사람이 나음을 입는 것입니다.

꿈은 씨앗입니다. 씨앗을 심어야 나지요. 심지도 않았는데 땅에서 무엇이 나겠습니까? 나는 게 있다면 잡초뿐이지요. 꿈이 없으면 인생에 잡초만 무성하게 날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과 잡다한 생각만 무성해서 인생이 어두운 동굴에 갇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결코 꿈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환경 안에 들어가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막9:23). 모세도 환경을 바라보니,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는 일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못한다, 안한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환경안으로 들어가니 가나안에 대한 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80의 나이에 장정 숫자만 200만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미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빌2:13). 이 말씀은 하나님은 일의 계획과 성취에 있어서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시되 강제적인 방법이나 수단으로 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당신이 꿈을 가지고 노력할 때 하나님도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루과이와 베네수엘라에서 백만 명 집회 요청이 들어온 것을 보고 저는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그의 사촌인 늙은 엘리사벳이 임신한 것을 보고 믿음을 굳게 붙잡은 것처럼, 제 꿈이 이뤄지는 것을 보고 여러분도 포기하지 않고 꿈을 이뤄가길 바랍니다. 아울러 우루과이와 베네수엘라 백만 명 집회를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총회장 이초석 목사

용서의 법

주일을 지켜라

1970년대 세계적 명성이 높아가던 젊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는 영국을 방문합니다. 윈저 궁에서 엘리자베스 여왕을 비롯한 왕실 가족들 앞에서 설교하게 되었는데, 여러 가지 일로 곤고하던 엘리자베스 여왕은 영국의 1인자, 또한 영국 교회(성공회)의 수장이라는 지위를 떠나 일개 크리스천으로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를 따로 집무실로 초빙하여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어찌해야 하는지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큰아버지 윈저공, 에드워드 8세였던 그는 미국의 평민 이혼녀 심프슨 부인과의 사랑을 택하며 왕위를 버립니다. 그로 인해 엘리자베스의 아버지 조지 6세는 갑자기 왕위에 올랐고, 평범한 삶을 꿈꾸던 엘리자베스의 기대도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병환으로 별세한 아버지 조지 6세를 이어 젊은 나이에 영국 왕위에 오른 엘리자베스는 어느 날, 2차 대전 당시 독일군이 후퇴하며 버리고 간 다량의 비밀문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큰아버지 윈저공과 심프슨 부인이 독일 나치와 내통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엄청난 파문이 일었지요. 그럼에도 윈저공의 관심은 왕실로부터 더 나은 대우를 받고, 심프슨 부인에 대한 공식적인 대우를 원했으며 왕실 행사나 영국 나들이에 부인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영국 조야를 들쭉시며 요청하고 다녔습니다. 왕실의 권위를 폭락시키고 자신의 선택으로 엘리자베스 가족이 겪은 고통에 대해서

는 용서조차 구하지 않는 큰아버지를 그녀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큰아버지에게 다시는 영국 땅에 발도 들이지 말라며 내쳤지만 마음은 괴롭기 그지없었죠. 영국 교회의 수장으로서, 그러나 영국 왕실의 대표자로서 심적 갈등이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 앞에서 엘리자베스 여왕은 솔직히 이런 사실을 토로하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어찌해야 하는지 겸손하게 자문을 구합니다. 빌리그레이엄 목사는 여왕에게 정답을 말해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용서하셨으니 우리도 용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에게 용서 외에 다른 법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마음이 생기지 않을 때조차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그런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나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세요.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입니다.” 프랑스에 머물던 윈저공의 입국마져 불허하던 영국 왕실은 윈저공 사후 그를 윈저성 묘역에 안치하고, 도저히 왕실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던 심프슨 부인의 유해마저 윈저공 옆에 안장합니다. 마지막 화해를 이룬 것입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는 내가 사는 길입니다. 원수조차 축복하라 하셨습니다(롬 12:14).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른 법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Henry Han

미국 12대 대통령인 재커리 테일러 장군의 대통령 취임식이 헌법에 의거하면 1849년 3월 4일이었다. 그런데 그날이 마침 주일이라 재커리가 취임을 거부하여 상원의장이 24시간 동안 대통령 임무를 대신했다. 그는 주일성수가 대통령 취임식보다 더 귀하고 우선이었기 때문이다. 1924년 프랑스 파리 올림픽 당시 100m 세계 신기록 보유자인 영국의 에릭 리틀 선수는 100m 경주가 주일에 열리자 경기를 포기했다. 확실한 우승 후보자였지만 포기하고 주일을 지켰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를 높여주셨다. 400m 경주에 출전하는 선수가 갑자기 뛸 수 없게 되어 그가 대신 뛰게 되었는데, 그는 한 번도 400m 경주를 해본 적이 없었으나 하나님은 주신 능력으로 47.6초의 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믿지 않는 자에게 일요일은 공일(空日)

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주일(主日)이다. 주님의 날이다.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뵈고, 온전히 그분을 위해 사는 날이 주일이다. 그러므로 그 날은 온전히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 그저 잠시 예배만 드리고 자기 할 일을 하는 날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찾아 봉사해야 한다. 설마 주일에 상사 결혼식에 눈도장 찍으러 가지는 않는가. 돈 준다는 약속 때문에 주일성수를 하지 않고 사람 만나러 가지는 않는가. 아침 일찍 예배드리고 오후에는 골프 치러 가지는 않는가? 하나님을 홀대하면, 하나님을 경히 여기면 하나님도 당신을 홀대하시고, 우습게 여기실 것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을 꼭 지켜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출 20:8).

예수중심편집실



:: 목사님께 온 편지 ::

오직 감사뿐입니다



총회장 목사님! 피곤했던 마음들을 내려놓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로 감사를 드리며, 아산예수중심교회를 건축하게 해주신 총회장 목사님께 늘 감사를 드립니다. 총회장 목사님의 지원이 없었더라면 지금도 조립식 건물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을 텐데...

사랑을 생각해봅니다. 누구든지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 감사를 드리는 모습만 봐도 가슴이 찡하며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칩니다. 총회장 목사님! 감사합니다. 강원도에 있는 저를 철산리로 불러 주심도 감사하고, 목사님을 그렇게 존경하고 따랐던 저에게 큰 시험을 주셨지만, 이 또한 잘 통과했음에 감사합니다. 기억하시죠? 새 르망 승용차를 인정사정도 없이 빼앗아버리신 일ियो. 저더러는 현 차를 타라하시고, 새 차는 선배이신 한명남 목사에게 주셨지요. 그때는 총회장 목사님을 무척 원망했는데요. 그 시험이 저에게 능력으로 변해서 지금은 화물차를 타고 전국을 다녔도 그저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 것에 감사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이 화물차가 없으면 지교회 공사와 자재, 이사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인천교회부터 전국 지교회에서 쓰임 받고 있는 화물차가 있기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총회장 목사님! 아산교회에 발령을 받고 와서 조립식 건물 60평을 건축한 후 재정이 어려워 그때부터 화목 보일러를 설치하고 산과 들로 다니면서 땀감을 구하던 때가 벌써 23년이 되었네요. 생선 장사를 할 때부터 부지런한 제 모습이 오늘을 만들었고, 문제가 다가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님께 늘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다마스 0.5톤 화물로 시작해서 가스 화물차, 경유 화물차, 이제는 오토 1톤 화물차로 전국 지교회를 일이 있을 때마다 상급을 쌓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기 전에 월동준비(화목) 2년 치는 준비했고요, 2층 난방석유도 값이 쌀 때 준비를 해워서 올해도 걱정 없이 교회를 운영할 것 같습니다. 지교회 공사 때 폐기된 목재는 모두 자루에 넣어 아산교회로 가지고 와서 따뜻하게 겨울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버릴 곳도 없고 폐기물로 값을 주고 처리를 해야 하는데

너무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현금한 동전 100원도 아껴야 하는 주님의 마음과 화장지 한 장 쓰는 것도 아껴야 한다는 총회장 목사님의 말씀에 늘 동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총회장 목사님! 강원도 속초에서 병들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땅바닥에 떨어진 전도지(시온산 기도원 집회) 한 장을 주어서 찾아갔던 시온산 기도원. 총회장 목사님께서 전해주셨던 주님의 말씀은 내 영혼을 살렸고요, 안수를 받고 고침을 받고 생선 장사가 예수 장사가 되는 축복을 주셨으니 감사 중의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총회장 목사님! 제게 맡겨주신 주님의 일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늘 강건하셔야 합니다. 총회장 목사님께서 강건하셔야 저희들도 총회장 목사님을 따라 주님께로 갈 수가 있으니까요. 성전에서 기도 후 몇 자 적어 올렸습니다. 제자 박인택 목사

코로나19사태의 종식을 위해 다함께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사막에서 별을 바라보며

저는 웃음이 많고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가끔 마음이 몹시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4장 18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러면 저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는 직접 ‘하늘의 못별처럼 네 자손이 많아질 것’(창15:5)이라고 얘기해주셨잖아요. 저에게는 아무 말씀도 없으시면서 제가 어떻게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겠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저는 꿈이 없었습니다. 딱히 하고 싶은 일도 없었고, 무엇을 잘하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회사 다니면서 봉사 열심히 하면 그걸로 족하다고 생각했지요. 그러나 로마서 말씀은 그저 답답하게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서 하나님은 총회장 목사님을 통해 제게 꿈을 주셨습니다. 제 처지와 환경을 생각하면 바랄 수 없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 꿈을 들었을 당시에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아멘’ 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했습니다(롬4:20~21). 설렘만 가득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쉽게만 느껴

졌어요. 그러나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저를 훈련하기 시작하셨고, 정말이지 너무 힘들고 아파서 다 포기해 버리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외적인 부분, 남들이 그럴듯하게 볼 만한 스펙을 쌓게 하신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연단하셨기 때문입니다. 억울한 일이 생기면 조용히 입을 닫고 하나님이 신원해주실 때까지 수년을 기다리게 하시고, 서운함이 들 때에도 말은 일은 최선을 다하게 하셨습니다. 신경을 살살 건드리며 화를 돋우는 일에는 무조건 참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거절당하고 상처받을 것 같은 두려움을 뛰어넘어 한 번 더 손 내밀게 하시고, 상대가 먼저 손을 내밀 때는 마음을 빨리 풀어서 때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행여 불순한 마음을 가지면 그것이 비록 아주 작은 마음일지라도 빨리 버리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편에 서는 훈련에서는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으로 인해 더 곤란한 상황에 놓여 눈물이 그렇그렇 맺힘에도 견디게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힘들기만 해서 ‘내가 언제 그 꿈을 달라고 했느냐며 원망했습니다. 그 모든 고통이 꿈을 위한 하나님의 훈련임을 알고 있었고, 또 하나님이 내게서 믿

음을 보기 원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그때에 믿음을 보이는 것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넘어지고 일어서는 훈련이 거듭될수록 이제는 모자람만 느낍니다. 기분에 따라 마음을 크게 쓰지 못하고 쪼잔하게 굴 때는 ‘난 아직 멀었구나.’ 하며 한숨 쉴 뿐입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갑니다. 여전히 훈련은 고되지만 더 이상 힘들게만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훈련기간이 길수록, 꿈을 향한 기다림이 길수록 그 사람은 내가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너도 끝까지 따라올 수 있겠니?”

예전처럼 뭘 잘 모르던 때였으면, “그럼요, 주님!” 하며 해맑게 대답했을 텐데 지금은, 저의 내면 상태를 보아 짐작건대, 아직 갈 길이 구만리나 더 남은 것 같아 대답 대신 눈물이 차오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훈련받은 시간들이 아까워서라도 끝까지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는 사막 한가운데서 하늘에 닿도록 크게 외쳐봅니다.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 당신을 신뢰합니다.”

박영신

그 정도는 해야지

아침에 출근 준비를 하던 나에게 초등학교 생인 첫째 아이가 옆에 서며 말했다.

“아빠, 머리 좀 빗겨주세요.”

학교 온라인 화상 수업을 하기 전, 자다가 봉 떠버린 머리카락을 가지런히 눌러달라는 얘기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해주었을 텐데, 그날은 불쑥 이런 말이 먼저 튀어나왔다.

“그 정도는 혼자서 할 수 있잖아?”

문득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 어디선가 들었던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말이 떠오르며, ‘아,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백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으실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다. 나도 아이가 ‘아빠 없이는 아무것도 못 한다’는 말보다 ‘아빠가 옆에 있으면 뭐든지 해낼 수 있다’는 말이 더 기쁘기 때문이다. 아빠가 보고 있으면 할 수 있다는 말이 기쁘고, 높은 곳에서도 용기 내어 나에게 뛰어내리며 외락 안기는 전적인 믿음과 그 행동이 기쁘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불가능은 없다, 불가능이란 생각만이 존재할 뿐이다’라고 외치는 주의 종을 필요로 하시고, 기뻐하시나 보다.

물론 아이가 걷다가 힘들 때 힘든 표정으로 나를 가로막고 안아 달라 하면 그래도 그 모습이 사랑스럽다. 아빠 힘든 것 생각해주시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가지 않고 내 앞에 나아온 자체가 사랑스럽기에 안아준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지쳤을 때 그 앞에 나아가는 것을 왜 기뻐하시고, 우상을 찾아가거나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왜 몹시 싫어하시는지 알 것 같다. 그래도 아이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척척 해나갈 때 가장 기쁘다. 웬지 하나님께서도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얘야, 그 정도는 네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공부하면, 관리하면 되는 것 아니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4:13).

박찬영 집사

:: 나도 건강할 수 있다 ::

잘 안 낫는 병은 화병(火病)을 의심해야

화병은 잘 참는 여자들에게만 있고 동양에서만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서양인들에게도 화병이 많으며,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모습으로 화병의 증상이 나타난다.

화병의 증상으로는 가슴에 열이 나고, 답답하고, 짜증이 나고, 불안하거나 한숨을 자주 쉬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있다. 또한 어지러움, 두통, 소화불량, 변비 설사가 잦은 증상, 불면증, 목에 무엇인가 걸린 증상도 있다.

화병으로 인하여 생기는 질환이 너무나 많은데 그중에 불면증은 가슴속에 화가 쌓여 수면 시에 얼굴이나 가슴이 뜨겁고 열이 있어서 수면에 들지 못하고, 답답한 가슴으로 우울하고 짜증이 나게 된다. 이것이 반복되어 심해지면 공황장애(극심한 공포를 느껴 발작을 하거나 숨이 잘 쉬지 않는 증상)로 발전된다. 화병이 식도로 가게 되면 역류성 식도염이 생기는데, 가슴이 타는 듯 뜨겁고 화끈거리는 증상이 바로 화가 쌓여있어서 생기는 증상이다. 화가 머리로 올라가면 열기가 모공을 손상시켜 탈모가 발생하기 쉽다. 갑상선 질환은 거의 화병으로 보는데, 화를 풀지 못할 때 나타나는 증상중 하나는 ‘매핵기’로 목에 무언가 걸려 답답한 느낌이 드는 증상을 말한다. 암환자의 경우에도 암이 발생하기 전에

큰 사건(사기, 배신, 상처, 파산, 억울한 사건, 외도, 이혼)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오랜 기간 작은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쌓인 만성 스트레스를 경험한 경우가 많다. 신체 심리학자에 의하면 암은 내 몸이 죽을 만큼 힘들다는 메시지이며,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하는 몸의 언어라고 한다. 그래서 암이 왔으면 지금껏 살아왔던 방식을 돌이켜보고 ‘우선멈춤’을 하고 내 몸과 소통하고, 내가 몸에게 한 잘못이 있다면 충분한 사과를 해야 한다.

그럼 화를 푸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첫째, 나를 사랑하기. 화가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 스스로를 못마땅해 하고 미워한다. 그러한 자신을 모르고 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의 의미는 자신의 부족한 점도 사랑하는 것이다. 10가지 좋은 모습이 있지만 하나뿐인 부족한 모습만 보면서 자책하는 사람들이 있다. 있는 그대로 부족한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다.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조차도 알아주고 인정해주어야 한다.

두 번째, 상처 주고 화나게 하는 가족을 용서하고 받아들이기. 나를 인정하고 사랑한 후에는 나의 생명의 뿌리인 부모와 가족을 사랑하는 단계이다. 완벽한 가족은 없으며 가족은 든든한 버팀목이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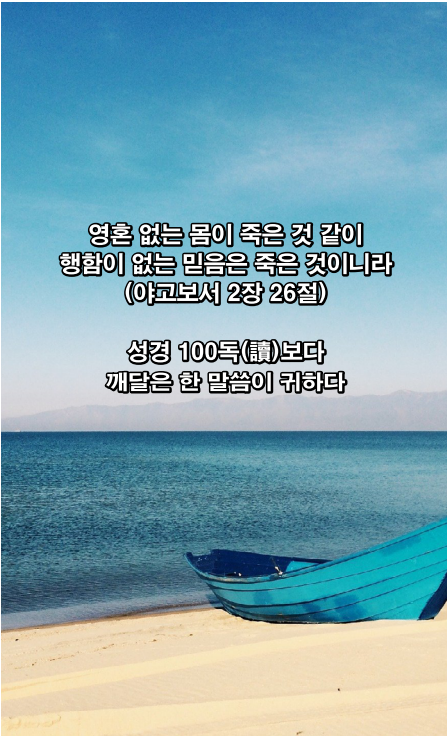
나를 더 화나게 하고 더 아픈 상처를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 가족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면서 마음으로는 화라는 감정에서 멀어지고 용서하기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다. 내가 화를 인정할 때 화는 밖으로 나갈 수 있다. 용서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다.

세 번째, 나를 화나게 하는 모든 것을 내보내기. 내가 누군가의 모습에 화가 난다면 그 모습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한다. 프랑스 심리학자 라캉은,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볼 수 없고 타인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한다. 즉 ‘타인이 나의 거울’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이것을 알고 인정하기만 해도 내 안의 감정은 순화된다. 나를 화나게 하는 저 모습이 나의 모습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 화낼 일이 별로 없어진다.

마지막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언어를 사용하면 화가 줄어든다. 자기를 사랑하기 위해서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라는 말을 내 자신에게 오늘부터 자주 표현하는 것이 어떨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잠16:32).

Dr. 설재현 집사
kseolmed@hanmail.net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

성경 100독(讀)보다
깨달은 한 말씀이 귀하다